

“힘들 때 달려갈 수 있는 친정 같은 존재이고파!”



죽음을 준비하는 말기환자들의 친구이자 엄마 같은 존재인
권로사수녀의 모습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상 좋은 너털한 이웃 같다.
그의 앞에서는 어떤 벅을 느낄 수도 없고,
스스로 방어벽을 만들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도 마냥
받아줄 것 같은 편안한 모습이다.

개인적으로 종교인들을 만나 이야기할 기회가 전혀 없
는 기자로서는 종교인을 만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큰
기대를 갖는 인터뷰였다.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수녀원에서 만난 권로사 수
녀는 자그마한 체구에 쾌활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
를 지닌 이였다. 긍정적인 사고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
는 환한 미소와 조용하면서 유머러스한 모습은 흡사 옆
집 아주머니나 친구 어머니 같은 모습이었다.

수도자의 길로 들어서면서 호스피스 시작

26살, 흔히 말하는 결혼적령기에 그는 가족의 거센 반
대를 물리치고 평범한 삶이 아닌 수도자의 길을 택하였
고, 그 이후 죽음을 목전에 둔 환자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6년 동안 700여명이 그의 기
도 아래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였다.

호스피스 봉사자들은 병원에서 더 이상 의료적 치료
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말기암환자나 말기エイ즈환자
들을 돌본다. 그들은 환자에게 상담자가 되기도 하고 친
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엄마가 되기도 한다. 그런 그
가 에이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호스피스 활동 중
만난 한 사람과의 인연 때문이다.

93년경 심신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한 말기 에이
즈환자가 삶의 마지막 보루로 한 성당을 찾았고, 그의 딱
한 사정을 접한 신부님의 소개로 조그마한 쉼 공간이 마
련되었다. 그 공간은 현재 에이즈 감염인들을 위한 ‘쉼
터’의 모태가 되었다. 그 환자는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
이지 못했고, 자신을 간호해줄 그를 인정하지도 않았다.
첫 2달간은 아예 방문조차 허용하지 않았고, 그후부터는
되려 화를 내기 시작했고 ‘내가 원숭이나? 무슨 구경거
린 줄 아냐?’ 라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 환자를 보며 내

“그 사람으로 인해 에이즈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30여년 동안 한번도 자신의 속내를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단순한 우정차원에서 한 행동들이 상대방에게는 어떤 식으로 해석될 지 몰라 하고 싶은 행동도, 하고 싶은 말도 꼭꼭 억누르며 살아오다 절 만나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하게 되었다고 영영 울더군요.”

심 기뻐했다고 한다. 비록 화를 냈지만 대화의 불씨가 터진 셈이었다. 왜 자신을 확대하나며 함께 싸웠다. 그 일이 있은 후, 그는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동성애자이자 에이즈 환자인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동성애자로 살아오면서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을 그를 만나면서 숨김없이 털어놓게 되면서 권로사 수녀의 에이즈와 동성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 사람으로 인해 에이즈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30여년 동안 한번도 자신의 속내를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단순한 우정차원에서 한 행동들이 상대방에게는 어떤 식으로 해석될 지 몰라 하고 싶은 행동도, 하고 싶은 말도 꼭꼭 억누르며 살아오다 절 만나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하게 되었다고 영영 울더군요.”

친구이자 엄마 같은 존재

당시 그 환자는 말기에 에이즈임이 판명되어 거의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CD4 세포수치가 49정도로 떨어진 상태라 육체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새벽 신문배달을 했다고 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이즈 치료약도 곧 죽을 자신보다 젊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사코 복용을 거부하지 했다. 죽음을 목전에 둔 그의 타인에 대한 배려와 성실한 삶의 자세는 하루하루를 더욱더 충실히 보내도록

채찍질했고, 죽음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를 그리고 주위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충실히 보낸 사람들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더군요. 그들을 보면서 저 자신도 삶을 충실히 보내도록 노력하게 되더군요.”

죽음은 생의 마지막 종지부란 사실을 알지만 누구도 그 죽음에 대비하지 않고 살고 있다. 아직은 젊다는 이유로 혹은 건강하다는 이유로, 그들이 에이즈환자든 암환자든 죽는다는 사실은 같지만 그들을 대하는 사회의 눈은 천지차이다. 유교적 도덕윤리를 강조하는 우리 사회에서 에이즈는 아직 편견이 강한 질병이다.

자신의 아들이 에이즈로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부모들은 자신의 가족 중에 에이즈환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질까 병원 근처에도 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가족들마저 거부하는 그들이 죽음을 준비할 곳은 마땅찮다.

특히 현재와 같이 치료중심의 의료시스템체계 하에서 그들이 쉼 곳을 찾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죽음에 하루하루 다가가고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공간이 빨리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김인영 레드리본 기자